

# BP, 올레핀 부문 “분사 후 매각”

PTA · P-X · 초산은 정유사업에 합병키로 ... LAO 분사 여부는 미정

BP가 O&D(Olefins 및 유도제품) 사업을 분사 후 공개상장(IPO)을 추진할 계획이다.

나머지 PTA(Purified Terephthalic Acid), P-X(Para-Xylene), 초산(Acetic Acid) 사업은 그룹의 정유 및 마케팅 부문과 통합해 2004년 말까지 BP Petrochemicals을 해체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.

O&D 사업부는 BP Petrochemicals에 투입된 130억달러의 자본금 중 54%를 차지하고 있으며 Olefins, Polyolefins과 더불어 AN이 포함돼 있다.

O&D는 2005년 말까지 공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 방법을 통해 독립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. BP Petrochemicals의 Iain Conn 사장은 “O&D의 모든 주식을 매각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BP는 2004년 3월 석유화학 사업을 O&D와 핵심제품인 PTA, P-X 그리고 초산 사업으로 분리하고, 화학부문에 대한 자본투자의 대부분을 핵심사업에 할당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.

BP는 O&D 매각이 시장상황과 협의절차에 영향을 받겠지만 공개상장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,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최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으며, O&D 사업 자체로서도 최상의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.

2003년 O&D 사업은 현금수익률 7%를, 핵심사업은 15%를 달성했으나 3년 전 O&D 사업의 현금수익률이 2-3%로 추락했었다.

BP의 석유화학사업은 Wales 공장 폐쇄와 특수중간체 사업의 매각으로 2004년 1/4분기에 2500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보았는데 1년 전에는 1억3700만달러의 이익을 달성했다.

한편, BP는 수개월 이내에 LAO 사업을 O&D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. BP는 2004년 3월 LAO 사업 매각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직물 및 섬유사업의 분리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.

BP는 70억달러 상당의 사업체를 매입할 만한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O&D 사업 전체에 대한 공개상장을 선호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6/21>